

서호인의 '소설처럼'



소설로 대신하는 진지한 대화

-샐리 루니 장편소설 '아름다운 세상이며, 그대는 어디에'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날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축구 경기 결과나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리저리 요묘조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다. 그러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진지한 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이번 총선에 어느 당에 투표할지 말이다. 다행히 같은 당이라면 더 세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당의 주류를 지지하는지 비주류를 지지하는지. 진지한 대화가 협의의 정치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등등. 우리는 이런 문제는 되도록 빼놓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진지한 대화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그 차이를 발견하면, 우리는 멀어진다.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군. 저 인간 진짜 별로네...

'노벨 피플'로 알려진 아일랜드 작가 샐리 루니는 지금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고 절묘하게 다뤄 젠지세대(Z세대)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다. 작가는 계급, 세대, 성별, 성적지향이나 다른 인물이 갖는 다양한 의견과 감정을 대화로써 드러나게 한다.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은 같은 도시의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계급적 차이가 극명하며 당연하게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르다. 둘은 자

유로운 연애 관계 혹은 족쇄와 같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진지한 대화로 마구 섞는다. 진지한 대화 때문에 가끔은 감정이 격해지고, 오해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대화를 통해 그들은 상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대화가 더욱 전면에서 나타난 소설은 '노벨 피플'보다 먼저 쓰인 '친구들과의 대화'이다. 소설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주인공 네 명은 나이나 계급, 직업과 가치관 모두 다르지만, 한 테이블에 모여 대화한다. 대화의 테이블은 그들에게 있어 삶 자체로 보인다. 테이블에서 그들은 시와 사진과 같은 예술을 논한다. 사랑을 말한다. 그들은 테이블을 좀 더 위태롭게 만들기도 한다. 격렬한 사랑을 나누고, 그만큼의 불안과 상처에 시달린다. 그것은 입체적으로 조직된 인물의 언어로 문자화된다. 대화라는 음성으로, 메일로, 편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모든 것은 진지한 대화의 플랫폼이 되며 그 위에서 인물은 스스로를 발설하여 세계를 폭로한다. 세계의 부조리와 인간의 불안정함을 언어로 드러낸다. 요즘 소설의 통상적인 미덕으로 꼽히는 정교한 플롯, 놀라운 반전, 흥미로운 사건이 샐리 루니의 소설에서는 언어가 대체한다. 마치 대화가 소설의 본질이라는 듯이, 언어가 소설의 전부라는 듯이.

작가의 최근작 '아름다운 세상이며, 그대는 어디에'는 그야말로 진지한 대화의 소설이다. 마찬가지로 각

기 다른 사정에 처한 인물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한다. 이 소설에서 샐리 루니의 인물들은 보다 더 진지해지기로 한다. 소설가인 '엘리스'와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펠릭스'는 메일을 통해, 전화를 통해 만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계급 갈등과 블랙시트, 이민자 문제와 배타주의... 서로의 의견이 같을 리가 없는데 둘은 모든 문제를 말하고 듣는다. 샐리 루니는 이번 작품에서 이르러 대화의 소설에서 의견의 소설로 한발자국 옮기려는 듯하다. 이 소설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게 무엇이든 의견을 갖기를 요청한다. 당신은 이러한 주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피한지 오래되었다. 소설로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싶다. 박경리의 '토지'에서의 대화를 읽으며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울분을 느꼈듯이, 이창준의 '당신들의 천국'에서의 대화를 읽으며 개발 독재의 논리와 모순을 알았듯이, 대화로 무언가를 알고 싶고 그 대화에 응하고 싶다. 어쩌면 근래의 소설은 이러한 대화에 나설 용기를 조금 덜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물들의 말은 줄어들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애뉠려 말문을 남기겠지만, 가끔은 대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때 샐리 루니의 소설은 뜨겁고 진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마침 소설이 끝난다. 아름다운 세상이며, 그대는 어디에.

<시인>

社說

'4대 케어 지원'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기대감

광주시가 이틀전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골자는 광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광주시가 현금, 의료, 돌봄, 일상생활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키움 ALL IN(올인)' 정책이다. 정책 이름처럼 아이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올인 하듯이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명 '가족지원 4대 케어'라고도 하는데 핵심은 현금성 케어 정책인 '광주 7400(만원)+ 정책'이다. 광주에서 아이를 낳고 고교생인 17세까지 살면 1인당 74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자격 요건 등에 따라 최대 3억 2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에 초중고 교육비 등 15종의 지원금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 가임력 검사비 등 임산·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인 '메디케어'와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케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초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올해 준공한다.

광주형 출생·보육정책은 저출생 시대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안간힘에서 나왔다. 전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이란 점에서 광주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고 한편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놓았던 저출생 및 보육 정책을 통합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놓은 만큼 이제부터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틀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인구는 9000명이 순유출됐다. 9세 이하는 0.2%가 순유입됐지만 20대 청년층의 2.2%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여력이 된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인 '메디케어'와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케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초동생

정원 미달 학과 전국 최다...위기의 지역대학

광주·전남 대학들이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원 미달 규모가 커 해당 대학에는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개 대학, 163개 학과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경기권 1개 대학 1개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34개 대학 162개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광주·전남은 모두 8개 대학, 60개 학과로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국·사립대를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 미달 학과가 생겼다. 모두 60개 학과에서 총 정원 194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는 822명에 그친 것이다. 이들 학과 가운데 19개 학과는

지원자가 5명 미만이었으며, 지원자가 단 한 곳도 없는 학과도 다수 나왔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인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광주·전남 대학은 각각 9개씩 18개교에 달했다. 미충원 인원은 광주권 대학이 1554명, 전남권 대학이 1475명으로 모두 3029명이나 됐다. 지역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돼 고삼이 큰 상황에서 정원 미달 학과까지 증가하는 것은 지역대학으로서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출생률이 급감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학과 개편과 대학 구조 개선 등 총체적 난국에 대처할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지명관
조선대학교병원
소아치과학교실 교수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환자의 고충

치아의 발육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치아의 발육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 치아의 발육장애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아질환을 통해 진단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치의 치절에 이상이 관찰된 경우 70%가 태생 전 병력을 가지고 있다.

치아의 발육 중 발육의 첫 단계, 즉 치아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치아가 결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6개 이상의 치아가 결손된 경우를 파치증(oligodontia)이라고 분류한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치아의 발육장애는 전신질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선천적인 치아 결손을 동반하는 질환이나 증후군 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배엽 이형성증과 다중증후군이 있다.

치과를 찾는 많은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다.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 또는 환경적인 영향이 모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환자는 여러 개의 치아가 없기 때문에 교합의 이상으로 인한 먹 는 것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어린아이인 경우 성장하면서 심미적 문제를 경험하며 커져가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치료 방법은 아이의 발달 단계, 연조직과 경조직의 해부학적 구조, 상실된 치아의 개수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은 성장이 완료된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아직 성장중인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성장이 진행중인 환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 치료 또는 중간 단계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성장의 단계마다 장치나 보철물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긴 과정동안 치료비 부담도 크다. 성장 중인 소아 청소년은 최종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심미성과 저작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심리 상태 또한 매우 위축되었다. 성장이 완료된 후에는 보철치료 또는 교정 치료를 동반한 보철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또한 많은 치료비가 들어 환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희귀질환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곳에 등재된 질환 중 치과 질환으로는 상아질 형성부

전증이 유일하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임상가의 입장에서 보기에 상아질 형성부전증뿐 아니라 법랑질 형성부전증, 국소적 치아 이형성증, 현재 아토피판 크이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된 MIH(molar incisor hypomineralization),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파치증 등이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모든 질환들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며 환자의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2023년부터 '서울대병원 소아 희귀질환 사업'의 일환으로 치과 희귀질환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하고 진료 가이드라인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각 지역의 대학치과병원(강릉원주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전북대, 조선대)의 소아치과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제는 국내 발육장애성 치과 희귀질환의 치료 코호트를 구축하고 치과 의사-환자를 위한 임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치과 희귀질환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제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아 치과 희귀질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고

'CES 2024'에서 얻은 값진 경험



김건희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 3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걸 곧 깨닫고 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제품을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물론 처음엔 외국어로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긴장해 있으니 머릿속엔 해야 할 말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프리젠티어 첫날은 실수가 가득한 채로 흘러갔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첫날 밤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늘 부족했던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등 남은 일정까지 나를 믿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에 낮은 밤까지 연습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자 둘째 날부터는 부담감이 줄어들었고 기업 대표님께서도 첫날 보다 표정과 태도부터가 달라졌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 주어서 고맙다고 격려해 주셨다.

그렇게 4일간의 CES 일정을 끝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돌아오는 비행기와 버스에선 미웠던 잠을 자느라 정신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큰 프로젝트를 끝마친 후처럼 흥분하고 뿌듯했다. CES 프리젠티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한 기업의 프리젠티어 역할을 맡아 제품과 기업을 외국인에게 설명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그저 개발자로 취업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업무가 내 미래일 거라

생각했던 막연한 나의 진로를 확정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 고향 광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나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인된 어학 시험의 점수나 등급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전에서 직접 외국인과 대화하며 느낀 나의 한계나 고칠 점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태까지 그저 이력서 한 칸을 메우기 위한 용도였던 외국어 능력은 내가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아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CES 2024를 다녀오며 느낀 것은 너무나도 많다. 현지에서 느낀 빅테크 기업들의 크기와 대세인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막 발표된 신제품들까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대학생이 한 회사의 제품을 이해하고 외국어로 설명하며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건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험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주저했었지만 막상 부딪혀 나가기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고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자리했다.

시작하기 전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앞으로는 자신을 좀 더 믿어보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당연히 변화할 수도 없다. 앞으로도 수도 없이 선택할 기회를 적어도 가져볼 노력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無等鼓

중국 후한 말기 외척과 내시가 권력을 양분했는데, 어린 황제들은 이들의 희생양이었다. 8살의 나이에 후한 제10대 황제에 오른 질제는 외척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재위 1년만에 독살 당했다. 대장군 양기에 게 '그대가 발호장군'이라고 했다가 유명을 달리란 것이다. 발호(跋扈)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다. 호는 물고기를 잡는 대나무 통발이다. 큰 물고기는 호를 뛰어넘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신하가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9세기 관료제가 도입된 이래 이에 대한 폐해는 무척 심각하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일제히 워싱턴 관료의 부패와 무능을 지적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관료들로 인해 국가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제도는 관료제의 기반 하에 작동한다. 입법부는 선출직으로 구성된 법-제도를 제정하고, 행정부는 선출직인 대통령이 수반이 돼 직

업 공무원들을 이끌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법부는 최종적인 판단을 맡는 시스템이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준은 대통령과 그가 임명하는 고위직들의 철학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자니 가깝다. 서민, 지방, 약자, 미래 등은 안중에도 없고 업자, 수도권, 부유층, 기득권층을 위한 '맞춤형' 조치만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살고 보겠다는 안일함, 미래 세대에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무책임함으로 점철된 이러한 정책의 출처는 태생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관료 집단일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며 백년대계를 짜고, 약자를 보듬어 균형을 잡아주는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준, 윤리와 규범, 철학과 당위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엉터리 시장 논리가 국정을 장악해버렸다. 관료의 발호를 견제하고, 선출직의 능력과 철학을 더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절실하다. /윤현성 정치부 부국장 chadol@

관료의 발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이메일 opinion@kwangju.co.kr